

CREATION TR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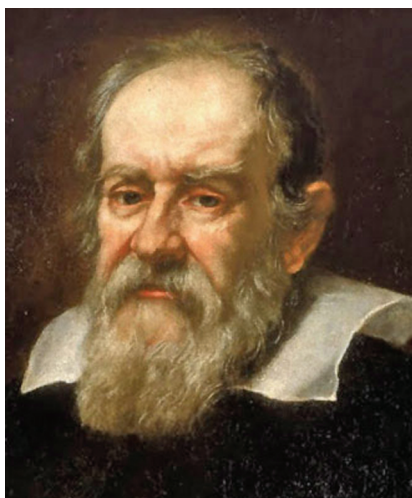
갈릴레오 바로 알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쉐익스피어가 출생한 1564년 이태리 피사의 부유한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 28세의 젊은 나이에 파두아 대학의 수학 교수가 된다. 기하학, 물리학, 천문학 등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지구의 자전과 해를 중심으로 한 지구의 공전에 대한 코페르니쿠스(1473-1543)의 지동설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당시의 천문학적 이해는 BC 4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그대로 전수 받은 일세기의 천문학자 톨레미의 천동설이었다. 천동설은 해와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황청과 종교 지도자들도 이 주장에 편승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천동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속의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닌 진화

론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갈릴레오가 태어나기 21년 전이었던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는 자기의 논문 ‘천체의 회전’을 교황 바오로 3세에 증명했다. 그는 정평 있는 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제시한 논문의 내용은 1500년 이상을 군림해온 톨레미의 천문학적인 이해를 도전하는 혁명적인 이론이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지동설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황당하여 아무도 믿으려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코페르니쿠스 자신도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 후 56년이 지난 1609년에, 갈릴레오가 화란의 안경 제조상이 만든 작은 망원경으로 천체를 30배 이상 확대하여 보기까지는 이 혁명적 이론이 사실상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7년 후인 1616년에 교황청이 코페르니쿠스의 저서와 함께 갈릴레오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42)

의 지동설 주장에 금지령을 내렸다. 그 이유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와 과학의 상반성(Incompatibility)으로 인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실제로 성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예로 1633년 종교재판 중에 인용된 성경구절(수 10:13, 시 19:1-5, 시 104:1-5, 사 40:22)을 살펴 보면 해와 별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표현하는 구절은 아무데도 없다. 오히려 이사야서 40장 22절(땅 위 궁창에; upon the circle of the earth)은 둥근 지구의 지동설을 표현하는 구절이다.

갈릴레오의 주장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처음에는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은 교제

의 고위층 인사들과 가까운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 때쯤에는 종교계에서도 사실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때라 원래 친분이 좋은 과학자인 갈릴레오가 영향력 있는 종교계의 인사들의 특혜를 받고 있었다. 이런 점은 1633년 6월 22일 당시의 교황 어반 8세의 명령에 의해 열린 종교재판의 결과에서도 들어난다. 10명의 재판관 중 3명이 판결문에 서명을 거부한다. 재판관을 강요한 교황 어반 8세는 교황이 되기 전에는 갈릴레오와 신분이 두터운 관계에 있었다. 그는 집권 초반(1624년)에는 갈릴레오와 여섯 차례나 장시간의 접견을 허용했다고 한다. 심지어 자기가 교황으로 있는 동안은 코페르니쿠스의 사상에 대한 열려는 결코 하지않아도 된다고 장담을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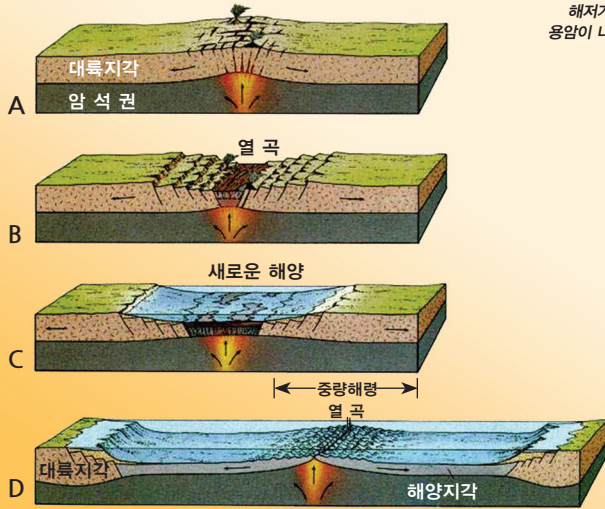
그런데 문제가 발단된 이유 중의 하나는 1632년에 출판된 갈릴레오의 ‘두 개의 세계관에 대한 대화’라는 책이었다. 책 내용인즉 저자인 갈릴레오가 어

면 사람을 접견하여 서로 세계관을 토론하는데 교황을 암시하는 가상적인 인물을 써서 교황에게 모욕적인 공격을 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교황청이 금지령을 내린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독일의 수학자 요한 케플러와 같이 갈릴레오의 주장에 동조를 한 사람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권위와 사고의 틀에 도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반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황청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 때까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방법 대신 갈릴레오의 관찰을 기초로하는 새 방법은 그들에게 불안과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갈릴레오와 교황청의 가까운 관계를 질시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과학계는 갈릴레오를 이단으로 몰아넣는 길 만이 그를 파멸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리하여 마지막 판결문에는 ‘이단적인 그의 지동설을 철회하고 교황청이 지정하는 주택에 삼년 동안 연금되어 일주일에 한번씩 일곱 참회시를 외울 것’을 형벌로 받았다. 1638년에 완전히 실명한 그는 그로부터 3년 후 1642년 1월 8일에 77세를 일기로 이땅에서의 삶을 마친다.

한 개인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회의 전통적으로 기존하는 사상에 도전할 때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측의 불안과 반발은 당연하다. 어떤 한 세대가 전체적으로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성경에 대한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 당시에는 중력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던 때라 지구가 빠른 속도로 자전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날고 있다는 것을 상상 할 수가 없었다. 사실 하바드 대학이 설립된 1636년 당시에도 천교수진이 톨레미의 천동설을 고수했다고 한다. 갈릴레오의 종교재판이 신앙과 과학의 상반성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인양 오늘날 진화론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것은 오류이다. 마찬가지로 진화론도 신앙과 과학의 상반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오류다. 성경적인 세계관과 비성경적인 세계관의 대결일 뿐이다. 틀린 과학이 성경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 없다. 세속의 과학이 어떻게 말하던 성경을 말씀 그대로만 받아 들이고 가르친다면 교회는 언제나 흠 잡힐 것이 없을 것이다. 자연주의에 기초한 진화론 일색의 과학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공식적으로 옹호하는 가톨릭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진화론적 과학에 근거한 성경해석을 과감히 배격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톨레미의 천동설과 다름없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은 다시 한번 성경과 진화론의 물과 기름 같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최인식 회장
의사



따뜻한 바닷물- 높은 습도의 근원

칼럼

통해 여러 번 언급된 것처럼 빙하시대의 관건은 결국 ‘눈(snow)’에 있다. 그러나 눈이 내리는 것은 단지 기온만 낮다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낮은 기온 이전에 그만한 양의 눈이 쏟아질 만큼의 대기 중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존재해야 한다. 대기 습도의 가장 큰 근원지는 바다 이므로 습도는 대양의 증발량에 따라 좌우된다. 증발량은 대양의 온도가 높을수록 많아지므로, 강설을 위해서는 대양의 높은 온도가 필수적이며, 아울러 이 증발된 수증기를 열게 하는 낮은 기온이 필요하다. 즉 높은 대양의 온도와 낮은 기온의 특별한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으면 습도의 근원지인 해수면의 온도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그려보는 것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오랜 지구나이에 기초한 빙하시대 모델들은 모두 추운 날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이 기존 모델들의 치명적 문제점이며, 실제로 빙하시대를 그려보는데 있어서 과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바로 이 높은 습도를 어떻게 타당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이다. 그러므로 추위에만 초점이 맞춰진 이론들은 한쪽 면을 설명하려다 다른 한쪽은 벽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오랜 지구나이의 틀에서 벗어나 성경 안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보려고 한다. 과연 대기 중에 포함되었을 엄청난 양의 물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그 열쇠가 바로 노아홍수 기록에 있다. 노아홍수는 시작할 때부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로 시작한다. 이는 지하수와 함께 지구 내부의 화산이 분출하는 대격변을 의미한다. 이때 분출했던 용암들은 해수의 온도를 높였을 것이다. 더욱이 노아홍수 후기, 즉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해수온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현재 해저는 용암이 굳어서 형성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용암은 노아홍수 후기, 즉 대륙이 이동하며 그 갈라진 틈으로 올라온 것들이다(노아홍수 후기 box 참조). 이 용암들이 해수온도를 더욱 높인 것이다(그림). 그리고 노아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이 대양의 높은 온도는 한동안 유지되며, 당시 기후를 습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빙하시대 전문가인 창조과학자 Oard는 홍수가 끝날 무렵에는 오늘날 평균 깊이 2.6km인 바닷물의 온도를 평균 30°C 정도로 추정했다. 오늘날 해수온도는 평균 약 5°C이다. 해수의 증발량은 해수 온도가 높을수록, 대기온도가 낮을수록 빨리 일어난다. 즉 해수온도와 대기온도 차가 클수록 증발은 빨라진다는 것이다. 특별히 해수온도가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상대습도각주 참조를 50%, 해수와 대기의 온도 차를 10°C로 고정시킬 경우, 해수 표면의 온도가 0°C일 때보다 30°C일 때 7배 정도로 더 증발이 잘된다. 한편 이 증발 과정은 해수온도를 점점 낮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만약 증발된 이 수증기가 이전 칼럼에서 언급되었던 대규모의 화산폭발로 발생한 화산재로 인해 낮아진 온도의 대기를 만났다면 엄청난 양의 눈으로 변했을 것이다.

홍수 직후에는 대양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눈보다는 비가 우세했겠지만 대양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었음에 틀림없다. Oard는 대양의 온도가 20°C에 도달했을 때부터 강설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는 앞 칼럼에서 언급된 대규모의 화산활동이 수반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그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빙하시대는 노아홍수가 끝난 후 200년경부터 시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강설은 따뜻한 해수 온도의 영향을 받는 바닷가보다는 어느 정도 바다에서 거리를 둔 곳부터 시작하며, 점점 내륙까지 확장되었을 것이다. 바닷가는 빙하시대 내내 증발을 일으킬 만큼의 높은 온도를 유지했을 것이므로 눈이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론은 실제로 빙하지형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데, 빙하지형의 분포를 보더라도 바닷가는 빙하의 흔적을 찾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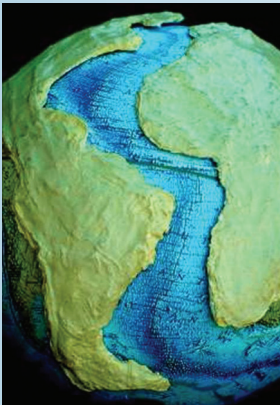
빙하시대의 강설에 필수적인 높은 습도는 노아홍수 때의 높은 해수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나 노아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한 가장 어려운 부분인 높은 습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는 것이다.

〈각주〉 상대습도: 일반적으로 기온에 따라 포화수증기의 양이 달라진다. 기온이 높으면 그 공기 중에 포화수증기의 양도 높아진다. 이를 고려해서 어떤 온도에서의 포화수증기에 대한 비를 상대습도라 한다. 보통 일기예보에서 습도라고 하면 이 상대 습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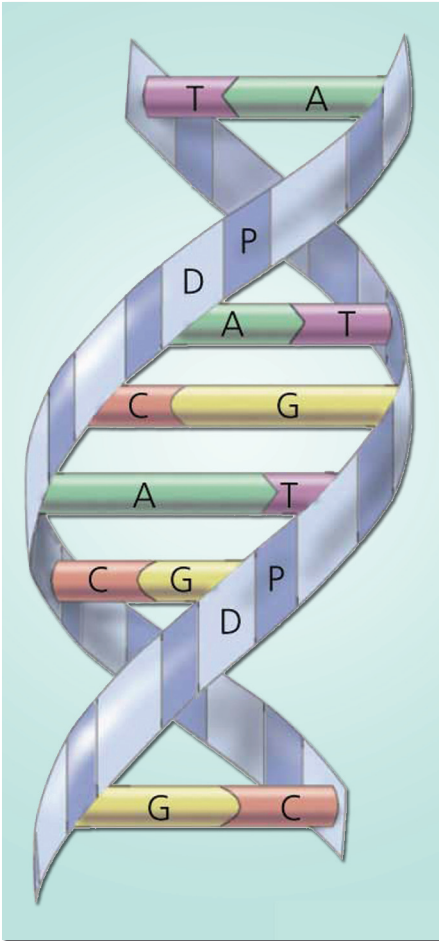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노아홍수 후기에 대하여



대륙이 이동하며 대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

노아홍수는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 전기는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서 전지가 물로 덮였을 때까지의 과정이며, 후기는 이 물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묘사 중 하나는 “땅에서 물이 물러갔다”(8:3)이다. 창조과학자들은 이 물이 물러가게 하는 과정으로 소위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대륙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은 한 때 붙어 있었지만 홍수 후기에 분리되며 사이에 대서양이 형성된 것이다(그림). 대륙이 서로 이동할 경우 바다 쪽은 낮아지고 넓어지게 되며 상대적으로 육지 쪽은 높아지고 좁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지구를 덮었던 물들이 바다로 모이게 되는 과정이 바로 홍수 후기과정이다. 이때 바다가 넓어지는 틈으로 지구 내부에 있던 용암이 분출하면서 굳어서 지금의 해저를 이루게 되었으며, 홍수 후기 동안 바닷물이 더워지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산과 강들은 이때 물들이 바다로 물러가며 남겨놓은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빙하시대를 이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산재들은 바로 홍수 후기에 형성된 지형 위에 쌓여있는데, 이런 선후관계도 빙하시대가 노아홍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발생했다는 증거이다.



DNA 이중 나선 구조

정보 체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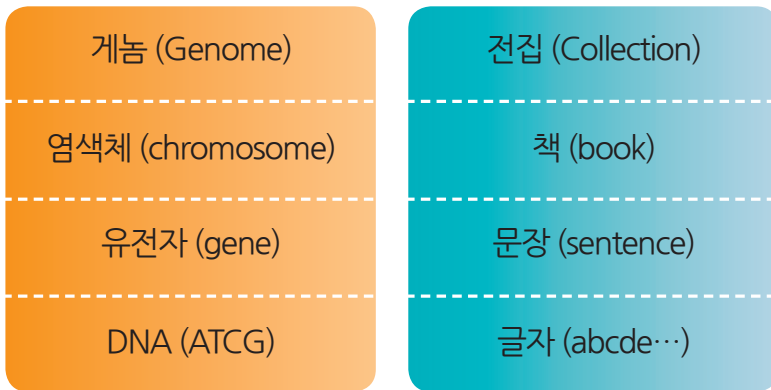
과학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유사한 방법으로 생명체 속에 생명체가 운영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담아두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사람은 영어 알파벳 26 가지를 선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결하여 많은 문장을 만들어 책을 이루게 하고, 여러 권의 책을 모아 한 질을 만든다(표). 이와 유사하게 생명체들도 생명체의 알파벳(DNA) 4 가지(A, T, C, G)를 선별적이고 반복적으로 연결하여 많은 유전자(문장에 해당)를 만들어 염색체(책에 해당)를 이루고, 여러 개의 염색체들이 모인 전체 정보(질에 해당)를 게놈(genome)이라 부른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과 유사하게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 수준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먼저 생체 정보 구조는 사람의 체계와는 달리 이중으로 되어 있다(그림). 우리는 흔히 그 구조를 이중 나선 구조라고 부른다. 정보를 이루는 기본 물질인 DNA(영어 알파벳에 해당)가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으로 배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가 한 줄로만 되어 있는 문자 체계에서는 누군가가 그 한 줄을 지워버리면 그 정보는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지만 생명체의 경우에는 정보 구조가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 한 가닥의 정보가 지워져도 다른 쪽에 있는 정보 덕분에 완전한 정보를 곧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네 가지 DNA 중 A는 언제나 T와, G는 언제나 C와 짝을 맺기 때문이다(그림). 이렇게 확실한 방법으로 정보를 보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완벽하게 잘 만드셨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미디어들은 2010년 5월 20일자 사이언스 익스프레스를 토대로 “합성 세포 창조” 혹

은 “살아있는 세포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실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과학자들이 아주 간단한 박테리아의 유전정보 전체(게놈 genome)를 인공적으로 합성한 후 유전정보를 제거한 다른 박테리아에 집어 넣어 그 생명체가 번식을 하고 살아가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새로운 기법을 사용한 기술의 발전일 뿐이지 새로운 발견도, 생명을 창조한 것도, 진화를 증명한 것도 아니다. 백만 개가 약간 넘는 DNA를 사람이 합성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약 1000 개 길이의 DNA 조각들을 합성한 후 효모에 집어 넣어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거듭하여 DNA 백만 개가 연결 된 게놈을 만든 것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효모가 만든 것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4천만 달러의 비용과 20 명이 넘는 박사들(그들을 돕는 더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의 정보 체계 비교

많은 인력이 필요)이 10 여 년 걸려 겨우 성공한 작업인데 박테리아들은 이 전 과정을 단 30분만에 끝내버린다!

현재 사람은 직접 백만 개가 넘는 길이의 DNA를 합성할 기술이 없다. 더구나 앞에 소개한 논문은 원소에서부터 시작해서 DNA로 된 생명체의 정보를 만든 것도 아니다. 가장 간단한 박테리아 유전정보를 사람이 복제하는 일도 아직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사람 세포의 DNA 수는 백만 개가 아니라 3,000 배나 많은 30억 개나 된다. 또, DNA 자체는 절대로 생명이 아니다. DNA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생체 기계들(단백질들)이 없다면 쓸 데 없는 물건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기술은 생명 창조나 진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논문을 소개하는 MSNBC는 이렇게 기사를 마치고 있다. “우리는 원하는 어떤 (유전)정보든지 쓸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써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체 정보를 복제는 하지만 생명체가 필요한 어떤 새로운 기능도 창조를 해 본 일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완벽한 기능들을 각 종류에 맞게 말씀으로 한순간에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이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ACT News

탐사여행 | 인턴십
창조과학학교 | 세미나



창조과학탐사여행

지난 5월 3-5일 대전 온누리교회(담당목사: 안광복)에서 닷새간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총 52명이 참석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오기도 했는데, 믿음 생활 가운데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였다고 간증들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순수 탐사여행만을 위해 교회가 단체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교회 단체로 참석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실제로 최

근 한국에서도 교회 단체로 탐사여행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탐사여행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성지순례보다 더 중요하다는 평을 합니다. 실제 성경의 확신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기 때 문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는 올해 8월과 10월 두 번의 탐사여행을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스 캐년에서 - 대전 온누리교회

플러튼 장로교회

지난 5월 21-23일 플러튼 장로교회(담임목사 노진걸)에서 탐사여행을 참석했습니다. 총 50명이 참가했고, 참석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과, 탐사여행이 복음 전파에 귀중한 도구임을 확인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2세들이 창조과학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했습니다.

일본 Love Creation

오는 7월 이재만 부회장은 5회 Love Creation을 인도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번 집회는 동경(8-10일)에서 뿐 아니라 고베(6, 7일)에서도 집회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일정부터 일본 교회에서 직접 초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요도바시 교회(담임목사 미네노)에서 11일 집회를 갖습니다. 이번 초청을 시점으로 일본교회에 창조과학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

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8월(House of Siloam)과 9월(Love Creation)에 두 번의 일본인 탐사여행이 계획되어있습니다.

10차 유학생 탐사여행

오는 8월 2-4일 10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출발합니다. 이제 탐사여행은 유학생 교회에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매년 1월과 8월 첫째 주에 출발합니다. 유학생 탐사여행은 서울 온누리교회와 일본인 온누리교회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므로 참가비가 \$90입니다. 참가자격과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쉽

창조과학 사역 2 세대를 준비할 인턴쉽 프로그램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한 인턴쉽 과정에 두 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잘 전하고 잘 배워 다음 세대에는 더 활발하게 교회를 돕는 일꾼들이 준비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턴쉽 과정은 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창조과학학교

5월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시행 된 창조과학학교를 ANC 온누리교회 West LA Campus (담당 목사: 한성득)에서 마쳤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였음에도 많은 분들이 끝까지 참석하셨고, 변화된 세계관과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다음 18기 창조과학학교는 ANC 온누리교회(담당목사: 유진소)에서 6월 13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 될 예정입니다.

특별기도제목

2010년 여름 창조과학선교회 일정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모든 탐사여행과 강의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인도자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잘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랜드캐년 Visitor Center에서 - 일본인 탐사여행

과거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평가할까

실험과학

창조론적

연구와 진화론적 연구 등 기원에 대한 연구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선 과학적 연구활동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점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학적 연구활동은 실험과학(operation/experimental science)이라 불리는 활동과 역사과학(historical/origin science)이라 불리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실험과학은 그 용어가 말해주듯이 현재 반복가능한 실험 및 관찰로부터 현재 사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활동을 말한다. DNA 나선구조를 밝혀내고, 유전법칙을 발견하고, 연구실에서 실험을 통해 지층을 형성하는 등의 일은 실험과학에 속한다. 또한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등도 실험과학에 속한다. 실험과학의 목적은 현재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피조세계가 현재 작동하고 있는 원리와 속성을 발견하는 일이다. 실험과학의 활동은 “현재” 혹은 시간에 관계 없는 법칙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특정한 세계관에 덜 민감하고 대신 엄밀한 과학적 방법론 - 실험설계, 측정, 가설설정 등 - 더욱 의존한다.



실험과학과 달리 역사과학은 그 용어가 말해주듯이 과거에 피조세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활동을 말한다. 실험과학의 대상은 현재에 실험실에서 반복가능한 현상을 다루지만, 역사과학은 과거에 이미 벌어진 현상을 다룬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인 “실험”을 통한 발견이 매우 제한된다. 우주의 생성, 그랜드캐년의 형성, 생물의 진화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역사과학에 속한다. 역사과학의 목적은 우리가 관찰하지 못한 과거에 피조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불행히도 현재 시점에서 연구자는 과거에 벌어진 일들의 단편적인 흔적들만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세계관에 훨씬 민감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단편적인 흔적들을 하나로 엮기 위한 “해석”이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창조나 진화나 하는 주제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역사과학적 연구이다. 역사과학적 연구 결과의 타당성은 두 가지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비록 부분적이라도 실

협과학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때 역사과학적 연구의 신빙성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 지층의 형성에 대한 연구와 같이 실험적 방법을 통해 현재 눈에 보이는 “사실”—즉 그랜드캐년과 같은 지층들—의 모형을 재현해볼 수 있다. 그랜드캐년의 형성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현재 과학자가 그 거대한 협곡을 다시 만드는 실험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실험실에서 현실을 단순화한 “모형”을 개발하여 작은 협곡의 형성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형을 확장할 때 적용할 물리학, 수학의 법칙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실험과학적 연구의 결과(모형 협곡의 형성) 위에 물리법칙들을 적용하여 보다 큰 규모의 과거 사실을 이론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적 증거는 점진적 침식 모형보다 짧은 시간동안 커다란 에너지에 의한 침식 모형이 실제 지형을 보다 잘 재현한다고 알려져 있다.

역사과학



그러나 이러한 “재현 및 확장”이 언제나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화 연구처럼 단지 아주 단편적인 재현(돌연변이, 육종 등)만이 가능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역사과학적 연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다른 하나의 기준은 단편적 발견들을 한데 묶는 해석이 얼마나 통일되어 있고 (통일성) 그럴듯한가(개연성)이

다. 다소 극단적으로 말해 역사과학적 연구는 하나의 “이야기 만들기”이다. 교통사고 민사재판을 상상해보자. 두 사람이 과거에 일어난 한 번의 사고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 때 판사는 어떤 이야기가 단편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관계에 맞게 하나의 순서로 잘 꿰고 있는지, 그 이야기의 부분적 내용들이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기원에 대한 연구도 실험과학에 의해 알려진 인과관계 혹은 법칙에 따라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그에 따라 보다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하는 작업이다. 진화 연구에서 중간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뼈아픈 것은, 중간화석은 진화 이야기의 그럴듯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텐데 그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과거에 대한 연구(역사과학)는 과학의 영역에 속하면서도 실험과학의 연구방법인 관찰과 실험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해석에 크게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포함하여 모든 역사과학이 안고 있는 공통적 한계이다. 해석에 관한 한 상당부분이 세계관의 문제이며, 어떤 해석이 옳은지는 그 해석이 얼마나 실험적 연구결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 해석의 전체 구조가 얼마나 단편적인 증거들을 일관되게 연결하는지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명쾌한 판결문일수록 이해하기 쉽고, 듣고 나서 의문이 별로 안 생긴다. 그것은 아쉽기까지 하다. 역사과학으로서 창조과학적 연구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연구가 쉬워서도 아니고 우리의 지능이 높아서도 아니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최태현 강사
행정학



세계관 전쟁 14



사람: 꼬리없는원숭이에서 진화된 동물인가?(7)

해부학

적인 증거와 더불어 네안데르탈인들이 완전한 사람의 위치에 있었다는 문화적인 증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시체를 매장했으며 시체를 잘 정돈하고 그 위에 꽃으로 덮는 등의 섬세한 장례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여러가지의 석기 도구들을 만들었고 동물의 표피와 가죽을 다루었다. 최근에는 네안데르탈인들의 유물에서 나무로 만든 피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그들이 의료 행위를 했음을 시사하는 증거도 있다. 어떤 네안데르탈인의 표본에서는 수많은 상처들, 부러진 뼈, 시각 상실, 질병 등에도 불구하고 늙을 때까지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 준다. 이 사실은 이들이 사람과 같이 동정심을 보인 다른 존재들의 보호와 양육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아직까지도 네안데르탈인들을 어떻게든 비인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이제 진화론자들은 심지어 네안데르탈인이 현대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작은 부분의 DNA가 약간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어떤 방법으로든지 네안데르탈인을 현대인보다 열등하다고 할 수가 없다.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들 중 하나인 트링크하우스(Erick Trinkaus)는 결론을 내린다. “네안데르탈인 유골과 현대인의 유골을 비교해 보면 운동 능력, 숨씨, 지능 혹은 언어 능력이 현대 사람들보다 결정적으로 열등하다고 할만한 해부학적인 구조는 전혀 없다.”¹

결론

그런데 왜 사람을 꼬리없는원숭이로 꼬리없는원숭이를 사람으로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을까? 고인류학 전반적인 주제와 방법론에 대한 가장 정직하고 솔직하며 주목 할만한 평가서에서 필름 박사(저명한 인류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나를 포함해서, 사람의 진화를 연구하는 여러 세대의 학생들은 어둠 속에서 헛손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들의 자료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도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론을 세워 볼 수가 없다. 그 이론들은 과거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들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진술서들이다. 고인류학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보여 준다. 그러나 그것은 정설에 반하는 행위인 것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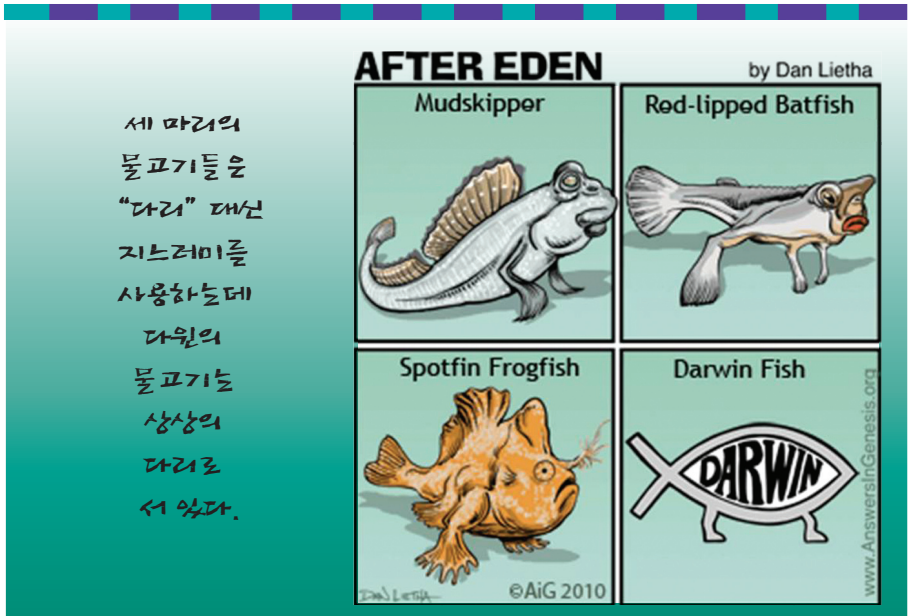
이렇게도 정설에 위배된 말들이 모든 교과서, 잡지, 신문 기사, 그리고 동상에 경고처럼 새겨져 있는데도, 뻔뻔스럽게도 사람이 짐승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다루어야만 하는가!

아니다. 우리는 꼬리없는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6일에, 창조의 꽃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 그 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 졌다. 만약 진화론으로 세뇌된 우리 문명이 그 사실을 진실로 이해할 수 만 있다면 이 진리는 어떤 혁명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끝)

1 Natural History 87:10, 1978.

2 American Scientist 66:379, 1978

데이비드 멘튼 / Answers in Genesis 출처: War of the Worldviews(2005)



대전온누리교회/플러튼장로교회 탐사여행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과 성경의 말씀이 또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가 하는 것도 ...

- 박승영

나는 그랜드캐년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랜드캐년을 보면 지층이 있기 때문이다. 왜 지층을 보고 느꼈냐면 하나님이 셋째날 바다를 만드실 때 지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노아홍수 때문에 지층이... - 박준희 초등3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화론으로 혼란스러웠던 점들이 명쾌하게 창조론으로 정립되는 계기가 ... 다음 아웃리치를 적극추천. - 정전철

처음엔 놀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랜드캐년을 보고, 그리고 브라이스, 자이언 캐년을 보고 창세기 1~8장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내가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었었다. 지구의 나이가 45억년이나 된다는 것과 진화론을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진화론은 가짜, 성경이 실제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 정재익 초등5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남겨 놓으신 심판의 경이로운 흔적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유병진

“처음이 좋았더라” 하시는 이제만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을 울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박은희

... “기린은 왜 목이 길까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전도사라는 이 여인의 대답, “높은 곳에 있는 잎을 먹기 위해서요~” 와우,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잡은 나의 세계관은 그렇게 비성경적이고 친진화론적이었다. 애고애고...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론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며... - 이진희

이상 대전온누리교회 탐사여행에서 (2010/5/3-7)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 많은 의심이 있었는데 이제만 선교사님의 강의를 통해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창조론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 최선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진화론으로 굳어진 나의 세계관이 공존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 주수학

성경책은 기독교인의 경전으로만 인식했는데 탐사여행 후 성경은 지구의 역사책이며 과학서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말씀에 난해한 점이 많았으나 강의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 무명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확실했지만 학문으로 배운 진화론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었는데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진화론의 모순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그저 멀고 막연하게 느껴졌던 노아홍수 사건을 손에 잡힐 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 이혜영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에서 시작된 간결하면서도 정리를 확실히 해주는 용어들이 무식한 나의 믿음을 재창조해주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노애희

... 진화론에 대해, 확실한 천지창조에 대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이어주신 어머니, 할머니께 감사하며 나도 우리 후손에게 확실한 믿음을 이어주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 황정숙

창조과학 선교회의 뉴스레터를 받아본지도 몇 년이 되었지만 이렇게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연주의, 진화론을 통해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확신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Yonghee Winfree

저는 이번 탐사여행을 통하여 성경을 보는 눈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노아홍수가 역사적 사실보다는 홍수 설화로 알았는데 역사적 사실임을 깨닫고 다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 이인엽, 뉴욕 그리스도의 교회

... 관광 여행으로 기대했으나 버스 속에서 이루어진 “창조과학 부흥회”를 갔다는 것 같았습니다. ... - 김순옥, 뉴욕 그리스도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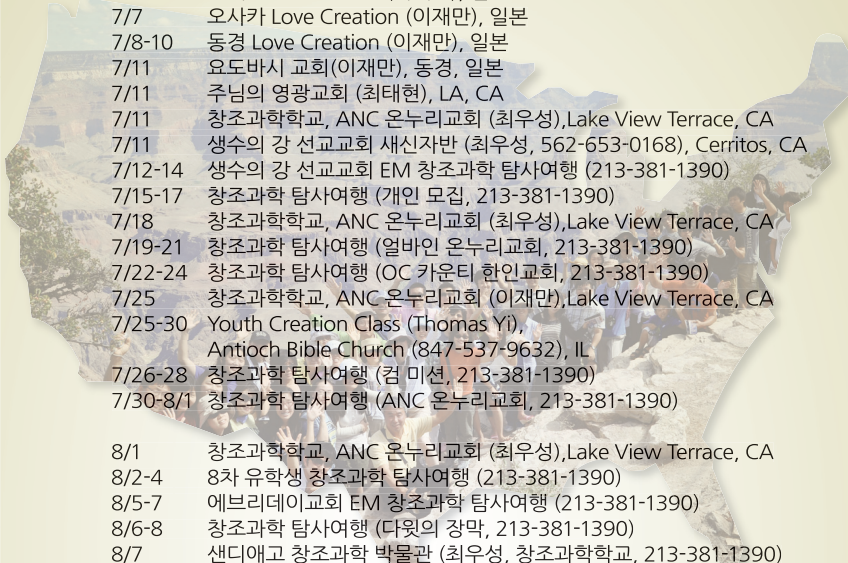
... 속이 후련합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참 놀랍고 빨리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더욱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사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아람, 뉴욕 그리스도의 교회

항상 창조론을 믿었지만 그 믿음을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패러다임이 빨리 무너지는 날을 보고 싶습니다. - 이하람, 뉴욕 그리스도의 교회

이상 플러튼장로교회 탐사여행에서 (2010/5/21-23)

● 지면상 다 실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을 포함해 모든 간증은 www.HisArk.com의 “간증”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0년 ACT Schedule

- 
- 7/1-3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름다운교회, 213-381-1390)
 - 7/4 LA 온누리교회 새신자 (최우성), LA, CA
 - 7/6 고베 Love Creation (이재만), 일본
 - 7/7 오사카 Love Creation (이재만), 일본
 - 7/8-10 동경 Love Creation (이재만), 일본
 - 7/11 요도바시 교회(이재만), 동경, 일본
 - 7/11 주님의 영광교회 (최태현), LA, CA
 - 7/11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Lake View Terrace, CA
 - 7/11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최우성, 562-653-0168), Cerritos, CA
 - 7/12-14 생수의 강 선교교회 EM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 7/15-17 창조과학 탐사여행 (개인 모집, 213-381-1390)
 - 7/18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Lake View Terrace, CA
 - 7/19-21 창조과학 탐사여행 (얼바인 온누리교회, 213-381-1390)
 - 7/22-24 창조과학 탐사여행 (OC 카운티 한인교회, 213-381-1390)
 - 7/25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이재만), Lake View Terrace, CA
 - 7/25-30 Youth Creation Class (Thomas Yi),
Antioch Bible Church (847-537-9632), IL
 - 7/26-28 창조과학 탐사여행 (컴 미션, 213-381-1390)
 - 7/30-8/1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213-381-1390)
 - 8/1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Lake View Terrace, CA
 - 8/2-4 8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 8/5-7 에브리데이교회 EM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 8/6-8 창조과학 탐사여행 (다윗의 장막, 213-381-1390)
 - 8/7 샌디애고 창조과학 박물관 (최우성, 창조과학학교, 213-381-1390)
 - 8/8 주님의 영광교회 새가족 (최우성), LA, CA
 - 8/9-15 창조과학 탐사여행 (크리스천 CEO, 213-381-1390)
 - 8/15 LA 온누리교회 새신자 (최우성), LA, CA
 - 8/15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이재만), Lake View Terrace, CA
 - 8/17-20 창조과학 탐사여행 (House of Siloam, 213-381-1390)
 - 8/22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최태현), Lake View Terrace, CA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